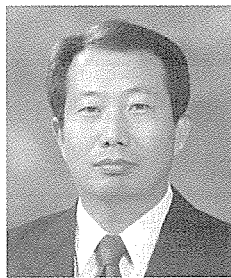


59년 창립...4천여회원의 매머드 학술단체 대한치과보철학회

1959년 9월 창립된 대한치과보철학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최초의 분과 학회로서 현재 전국에 6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4천여명의 회원이 뭉쳐 학술활동을 펴오고 있다. 발전기금 5억원을 확보하고 있는 이 학회는 학회지를 격월로 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3회의 본부 학술집담회와 13회의 지부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학회 임원들은 내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될 제1회 아시아보철학회 준비에 여념이 없다.



申相完

〈고려대 의과대 의학과 교수/총무이사〉

장 중요한 분야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치과보철학의 이상을 연구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1959년 9월 16일에 학회를 결성하여 이를 '대한치과보철학회'라 이름하고 초대회장에 치과계의 원로인 이영옥(李永玉)박사를 추대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최초의 정식 분과학회로서 인준을 받았으며 치과보철학의 향상,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는 목적 아래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국에 6개 지부 설치

대한치과보철학회의 구성은 1명의 회장과 3명의 부회장, 그리고 8개 전문부서(총무부, 학술부, 재무부, 홍보부, 섭외부, 국제부, 연구부, 편집부)의 실무를 담당하는 8명의 이사와 약간명의 평이사 및 감사 2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회의 전국적인 균형 발전을 위하여 현재 6개 지부가 창립되어 각각 지부장 및 임원이 선출되어 지부업무의 추진과

함께 본회의 업무에 협조하고 있다.

현재 대한치과보철학회의 회원수는 4천명이 훨씬 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치과의사 수와 각 분과학회의 종류를 감안할 때, 대한치과의사협회 내의 가장 큰 분과학회일 뿐만 아니라 단일회로서는 전국 최대규모의 학회중 하나이다. 또한 대한치과보철학회에는 고문과 명예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치과보철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인준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대한치과보철학회의 정회원으로서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히 원로회원으로 추대하여 후학들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있다. 학회를 이끄는 회장으로는 현재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의 김영수교수가 1997년 정기총회에서 선출되었다. 김영수회장은 대한치과보철학회의 제 20대 회장으로서 1970년부터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 재직중이며 치과보철학 분야의 선각자로서 이미 국내외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있다. 또한, 치과의사의 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1997년 세계치과연맹 서울총회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대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논문과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

대한치과보철학회는 매년 전국 규모의 춘계학술대회와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춘계학술대회는 5월에 서울에서, 그리고 추계학술대회는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11월 말경에 개최하고 있다. 춘·추계학술대회에서는 치과대학의 교수 및 전공의들의 논문발표, 포스터발표, 각종

치 과보철학은 치아 및 주변 연조직의 소실로 인한 구강기능(저작, 발음) 장애를 회복하여 씹으로써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음식물 섭취와 소화기능을 개선시켜 주고 구강 및 안면부의 결손된 부분을 회복시켜 보기좋은 안모를 갖도록 해주는 각종 보철물을 제작하고 관리하여 주는데 연관된 학문으로서, 그 이론적 바탕이 되는 개념들을 연구하고 실제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임상술식을 개발하여 인류의 복지에 기여하는, 치의학분야의 가

증례발표가 진행되며 주제별 심포지엄, 그리고 국내외 석학들의 특별초청강연이 이루어진다. 학술대회에서는 박사학위 논문 중에서 매년 1편씩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신인학술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이는 치과보철학의 발전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젊고 패기있는 학도들에게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학술대회에서는 치과 기자제도 동시에 전시되는데, 참석한 회원들이 최신의 첨단 의료장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 사용법을 익히며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올해부터 학회지 격월 발행

대한치과보철학회에서는 이러한 전국규모의 대규모 춘·추계학술대회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학술집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관심있고 특별한 소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한다. 1998년에도 3회의 본부 학술집담회와 13회의 지부 학술대회가 계획되어 시행 중에 있다. 또, 임상가들의 환자 진료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수술회의 보수교육과 각종 임상연수회 개최를 통하여 치과보철학의 기초 및 임상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그리고 1963년부터 각종 학술대회의 자료정리와 함께 연구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학회지인 「대한치과보철학회지」가 발간되어 오고 있다. 발간 당시에는 회원 수의 절대 부족으로 연 1회의 발간에 그쳤으나 치과사의 수 및 대한치과보철학회

회원 수의 급증 추세에 따라 1989년부터 연간 2회로 발행 회수가 증가하였고, 1991년부터는 연 3회, 1992년부터는 연 4회의 계간지로 발간하고 있으며, 넘치는 연구논문으로 인하여 1998년부터는 매년 6회의 발간으로 증가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창립 이래 1997년 4호까지 통산 제 35권 4호가 발간되었으며 매년 70~80편에 이르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학회지가 순수 연구논문 위주로 구성되었지만, 미래의 변화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1998년부터는 임상가들에게 꼭 필요한 중설, 증례보고 등 임상논문도 회원들을 위해서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게재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모든 학회활동에 관련된 기록을 사진이나 스크랩, 비디오 테이프 등으로 기록하여 역사적 자료로서 보관하고 있으며 「보철학회소식지」(Newsletter)를 연 4회 발간하여 대한치과보철학회의 본회 및 지부 학회의 소식 및 전국 치과대학과 수련기관의 소식, 학회 회원의 경조

사 등 다양한 정보를 회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학회에 대한 회원들 자신의 주인의식을 배양하고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치과보철학 및 이에 연관된 학문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계획에 있다.

향후 대한치과보철학회가 국제적 학회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보철학회, 또는 해외 유수의 치과대학과의 교류, 결연 및 유대 강화, 해외 연사의 초청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적 규모의 학회 참가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제학회에서 소개되는 최신 학술정보 및 국제적 학회지를 신속히 소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치과보철학과 관련된 연구과제 특히 치과보철학 분야를 세부전공별로 구분하는 과제를 연구 중에 있다.

이밖에 대한치과보철학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기타 사업으로서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의 실기(주·객관식)고사를 주관하여 양질의 치과기공사



▲ 1996년도 대한치과보철학회 춘계학술대회 광경

를 배출하도록 힘쓰고 있으며 전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전체적인 치과의로 전달체계의 중요한 부분을 관장하고 있다.

대한치과보철학회의 제정은 회원들의 입회비와 연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최근 치과보철학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높은 관심으로 인한 회원 수의 급증과 더불어 이를 운영하기 위한 기금의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대두되어 착실히 기반을 다진 결과, 현재 약 5억원을 상회하는 발전기금이 조성되어 있다. 앞으로는 학회 발전기금의 적립 및 증대와 아울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또한 학술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기 위한 적절한 사업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며 치과보철학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보철학회 학술대상'을 제정하고 현재 적립되어 있는 발전기금중 일부를 학술대상기금으로 조성하여 매년 우수논문 발표자를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급함으로써 치과보철학의 발전에 전기를 마련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대한치과보철학회에서는 매년 1회의 정기총회를 11월 말경에 개최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는 4천명이 넘는 전 회원이 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각 지역과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대의원제도에 대하여 연구검토중이다.

또한, 전국 보철학 교수 및 학회 임원이 모두 참여하는 정기 워크숍을 대덕연구단지에서 연 1회 개최하여 학회의 장기적 발전 방향 및 인정의(전문의) 업무 등 중요한 사안

에 대한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토론하고 이를 심의하여 발전 계획을 제시하는 모임을 갖고 있는데, 올해의 주요 사업계획 중에는 인정의 및 전문의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 기반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1997년에 1백51명의 인정의 및 71명의 교육지도 인정서가 교부된 바 있고 실사를 거쳐 31개의 수련병원을 지정하였으며 1998년에는 수련병원의 추가 실사와 함께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정의 보수교육 및 인정의 시험이 중점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아시아보철학회 서울유치

1998년도 대한치과보철학회의 주요 사업계획 중에는, 회무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회무의 전산화가 있는데 학회의 방대한 업무를 체계화하는 한편, 치과보철학의 요람인 「대한치과보철학회지」를 창간호부터 CD-ROM으로 제작, 보관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작업도 추진중이다. 아울러 대한치과보철학회가 국내 치과의사들의 최대 학술단체로 만족하는데 그치지 않고 명실공히 국제적인 학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장기적이고도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선 학회지를 국제논문학술지에 등록하여 ISSN 0301-2875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바 있으며 세계적인 치과보철학 저널인 「Journal of Prosthetic Dentistry」의 sponsoring organization 참여를 타진 중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한치과보철학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해외 유명저널에 국

내의 우수 논문이 게재될 가능성을 증대시키며 치과보철학의 연구 분위기를 더욱 고양시킬 수 있는 부대효과들을 기대하게 한다. 그리고, 영문 초록집을 발간하여 외국의 대학 도서관에 발송함으로써 해외에서도 국내의 치과보철학 연구상황을 쉽게 알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할 예정에 있으며, 인터넷에 대한치과보철학회의 Home page를 1998년 5~6월경에 구축하여 해외에 대한치과보철학회를 홍보하고 학술정보를 교류하는 장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권위있는 국제학회를 적극 유치하여 학문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도 빼놓을 수 없다. 1991년 제4차 국제치과보철학회(International College of Prosthodontists) 이후에 현재까지 국제치과보철학회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미 1996년 국제악안면보철학회(International Congress on Maxillofacial Prosthetics)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바 있고, 1999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회 아시아보철학회(Asian Academy of Prosthodontics)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 및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대한치과보철학회는 치과보철학이라는 학문적 특성상 다분히 임상적인 측면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적, 기초적 배경에 대한 연구를 탄탄히 수행하는 길잡이가 되어오므로써 앞으로도 더욱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대를 한껏 받고 있는 학회라고 평가되어지고 있다. ⑤7